우암학원 창학 73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1 SINCE 1952

FELICE 승원 팰리체
승원건설그룹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1953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2월 8일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현직 유리 '깜깜이 조합장선거법' 과열·혼탁에 '돈 선거' 부추긴다

대중연설도 토론회도 허용 안돼 기간 13일에 나홀로 선거운동
신인 후보들 "할 일이 없다" 불만 광주·전남 벌써 57명 불법선거 수사

"선거운동 기간은 짧은데 선거법 등 제약도 많아 얼굴도 알리기 어렵습니다."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지난 23일부터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지만,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법 탓에 신인 후보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알리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후보자 간 정책 비교는 고사하고, 누가 출마한 지 조차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후보자 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선거운동은 여의치 않자 결국 금품으로 표심을 얻으려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돈 선거'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는 182개 조합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다. 총 381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쳐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지역에서도 총 18개 조합이 선거를 치르며, 49명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후보자들은 후보 등록을 마친 다음 날인 지난 23일부터 투표 하루 전인 3월7일까지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 상태다. 광주·전남의 420명 후보자들은 엄격한 제한 규정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물밑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나흘째에 접어들었지만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깜깜이 선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나주의 한 조합장 후보 A씨는 "선거법이 과도하게 제재가 많아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 그 자체다"며 "대중연설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공약과 정책 관련 토론의 장도 없어 후보자 간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광주의 또 다른 조합장 후보 B씨 역시 "토론회도 허용하지 않아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약칭 위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 호별 방문은 물론, 특정 장소에서 연설회나 토론회조차 할 수 없다. 어깨띠와 윗옷, 소품, 벽보와 공보물 그리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만 자신을 알릴 수 있다. 문자메시지도 동영상이나 사진은 전송하면 안 된다.

전남의 또 다른 조합장 후보자 C씨는 "유권자에 대해 고작 아는 건 이름뿐이다. 이에 반해 현직 조합장들은 유권자를 면면히 알고 있다"며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만 있어도 찾아가 홍보하고 얼굴을 알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여기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총 13일에 불과한데다,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오로지 후보 본인만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배우자 등 가족조차 참여할 수 없어 오로지 혼자 발품을 팔아가며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전남의 조합장 후보자 D씨는 "2주도 안 되는 선거기간 조합원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지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이미 이름이 알려진 현직만 유리한 상황이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처럼 조합 사정에 밝고 유권자와 접촉이 잦았던 현직 조합장이 신인 후보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벌써부터 불법 선거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실제 당장 광주·전남지역 조합장 선거 관련해 수사선상에 놓인 이들만 50명을 넘어섰다.

이날 광주경찰과 전남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37건 57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거나 검찰에 송치를 마쳤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금품을 전달하거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선물을 보내는 등 금품수수가 가장 많았다. 한편 위탁선거법은 지난 2020년 후보자 외에도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참여, 인터넷·SNS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 보다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26일, 광주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전달할 각 후보의 공보물을 정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알립니다

71 SINCE 1952

광주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71기 수습기자 및 경력기자 모집

올해로 창사 71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열정과 패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광주일보는 그동안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발굴, 보도하면서 독자와 지역민의 대변지를 자임해왔습니다.

신문과 인터넷·모바일이 어우러진 융합미디어를 지향하는 광주일보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호남언론 종가에서 100년 신문의 역사를 열어갈 창의적인 사고와 정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대상

모집부문	전형절차	자격
수습기자 0명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경력기자 0명		

전형일정

전형방법	일정 및 장소	
지원서 접수	2월 28일(화)	방문 및 우편 메일(chongmu@kwangju.co.kr) 접수
서류전형 발표	3월 2일(목)	개별통보
심층면접	3월 8일(수)	본사 10층
최종합격자 발표	3월 9일(목)	지면 및 개별통보

제출서류

수습기자	입사지원서 1부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1부	A4 용지 1장 이내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경력기자	수습기자 응시자 제출서류와 같음	개인정보 비밀 보장
	본인 작성 기사 사본 5건	

▶접수처: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국

光州日報社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하나

대통령실 "내수 진작 논의중"

대통령실이 경기 침체로 어려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시사했다.

그는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으로 예외를 뒀다. /오광록 기자 kroh@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weeks
고함량 고강도 레티놀이 눈가 및 팔자 주름 등을 단 2주 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 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만 40-59세 성인 여성 대상 2019.09.16~10.17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